

◇… 일본, 大阪府醫藥品等 부작용연구회는 1981년도의 의약품등의 부작용조사결과를 보고한바 있는데 부작용에 관한 특별연구로서 「경구혈당강하제 및 인슐린의 부작용 특히 저혈당에 대하여」가 大阪府立成人센터, 大阪醫學部에서 보고 되었다. 이에 따르면 저혈당발작의 빈도는 경구치료군에서 32.5%인슐린치료군에서 68.6%가 경험하는등 예상이상의 높은 빈도이며 환자교육의 충실패도가 필요로 하고 있다.

患者教育에의 充實을 豫想外의 低血糖發作

당뇨병치료의 목적은 환자의 대사상태를 개선하는데 있는데 이 때문에 인슐린 혹은 경구혈당강하제에 의한 약물요법이 널리 행하여지고 있다. 이를 약제는 혈당을 강하시키고 대사상태를 개선하고 자각증상을 소실시키는등 우수한 약효를 가지며 현재의 당뇨병치료에는 불가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인슐린에 의한 저혈당은 양호한 콘트롤을 엄밀하게 추구하면 할수록 저혈당을 초래하는 확률을 커지고 반대로 저혈당회피에 중점을 두면 콘트롤 상태를 어느정도 회생시키지 않을수 없는 면이 있다. 따라서 당뇨병의 치료에는 저혈당의 위험성이 많은 적은 수반되기 마련이며 저혈당에서 피할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저혈당은 환자에게 있어서는 극히 위험한 상태이며 이에대한 적절한 처치를 취할수 없을 때에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수가 있다.

그러므로 당뇨병의 치료에서는 저혈당에 대한 환자교육의 역할이 필요하며 조기에 저혈당증상을 인식하고 속히 필요한 행동을 취하도록 일상에 충분한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다.

府立성인센터의 틀록당뇨병환자의 요양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암케이트조사와 그 일환으로서 인슐린경구혈당강하제의 부작용을 조사하였다.

經口血糖降下劑 인슐린의副作用

우선 현재의 치료방법에 대하여 7명이 회답, 가장 많은 치료방법은 경구혈당강하제의 39.2% (2백75명) 다음

저경구제를 포함 3백26명이 회답하고 그 중 83명 (25.5%)이 부작용을 경험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부작용의 내용은 소화기증상이 가장 많고 위장장애와 식욕부진이 합하여 44.5%, 구토·설사가 각각 8.4%, 7.2%였다.

다음에 발진·두드러기의 피부증상이 28.9% 간기능장애가 18.1% 등으로 되어 있다.

다음에 인슐린에 관해서는 우선 1일의 사용량(단위수)은 87명의 회답이 있고 그중 20~32단위의 것이 57.5%로 평균을 점하고, 이어 12~20단위의 비교적 소량의 것이 19.5%로 보이나 36단위 이상의 것은 16.2%로 약간 적어진다.

인슐린의 주사는 누가 하는가는 93명의

군에서는 53.3%이며 한편 식사치료만의 군에서는 33.9%, 비치료군 18.0%로 심한 저율로 되어 있다.

다음에 저혈당을 경험한바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전체 6백27명이 회답하고 그중 1백69명 (27.0%)이 「경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비율은 현재의 치료방법별로 보면 각群에는 당연히 차이를 볼수 있다.

인슐린치료군에서는 가장 高率이 68.6%, 경구혈당강하군에서는 인슐린群보다 상당히 낮으나 그래도 32.5%가 저혈당을 경험하였다. 또한 식사요법군 준치료군에서도 약간의 저혈당경험자를 볼수 있으나 이것은 과거에 있어서의 치료에 의한것으로 보인다.

저혈당발작시의 증상에 대하여는 1백

중 1백1명에 대하여는 그 처치가 적절했다고 판단되었다.

저혈당반응의 발생실태를 안다는 것은 당뇨병치료의 적부나 환자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원이 된다. 저혈당은 왜 일어나는가 또 저혈당이 일어났을때 어떻게 대처할것인가에 대하여 필요한 지식을 주입시킨다는 것은 당뇨병환자교육의 기본이나 모든환자에게 속지시킨다는 것은 실제로는 용이치않다는 것을 이 조사결과가 말해 주고 있다. 이번의 조사에서는 저혈당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은 인슐린치료군에서는 84.8%에 달하는데 경구혈당강하군에서는 53.3%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저혈당발작은 경구제군에서는 37.5%로 일어나고 있으며 인슐린치료군의 68.6%에 비하면 적다

低血糖은 위험상태, 적절한 處置필요하다 經口血糖 강하제는 副作用많아 教育이 중요

회답이 있어 환자본인이 59.1%, 환자가족이 17.2%, 암자를 합하면 76.3%가 되어 자기주사가 잘 보급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인슐린의 부작용은 1백14명의 회답이 있고 그중 75명 (65.8%)이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으며 경구제에 비하면 그빈도는 현저하게 높다. 부작용중에서는 저혈당이 암도적으로 많아 68.0% (51명) 다음이 피부의 가려움 41.3% (31명) 주사부위의 硬結 26.7% (20명) 피부의 發赤 16.0% (12명) 주사부위의 핵철 8.0% (6명) 등으로 되어 있다.

71명이 회답, 가장 많은 증상은 癲癇의 67.8%, 다음이 手脂의 벌림 42.7%, 脱力感 40.4%, 동계 32.2%, 현기증 26.3%, 강한공복감 25.1% 등으로 되어 있다.

의식소실과 같은 重症의 저혈당반응도 8.2%로 보였다. 이를 증상의 패턴이 저혈당의 원인약제가 인슐린인지, 경구제인가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보았으나 양군사이에 큰차는 볼수 없었다.

단 인슐린치료쪽이 약간 증상의 출현빈도가 많은것, 냉한, 동계, 강한 공복감 등의 증상이 많은것, 의식소실도 약간많은 경향이 보이는것들로 보아 인슐린

고는 하나 경구제치료환자의 약 3분의 1이 저혈당을 경험한 것으로되며 또한 실제의 환자수는 인슐린치료환자보다 매우 많다.

이것은 경구제치료환자에 대한 환자교육을 한층 충실히 하여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경구혈당강하제의 부작용		
	증례수	%
회답자수	326	
부작용있음	83	25.5
위장장애	27	32.5
식욕부진	10	12.0
구토	7	8.4
下痢	6	7.2
발진·두드러기	24	28.9
간기능장애	15	18.1
기타	26	81.3

인슐린의 부작용		
	증례수	%
회답자수	114	
부작용있음	75	65.8
가려움	31	41.3
發赤	12	16.0
주사부위의陥凹	6	8.0
주사부위의硬結	20	26.7
저혈당	51	68.0
기타	10	13.8

低血糖의 경験			
	회답자수	있음	%
총	627	169	27.0
치료약을	47	5	10.6
식사요법	212	21	9.9
경구혈당강하제	243	79	32.5
인슐린	86	59	68.6

營業種目

• MICRO FILTER 및

空調 FILTER

• 淨水裝置

• 純水裝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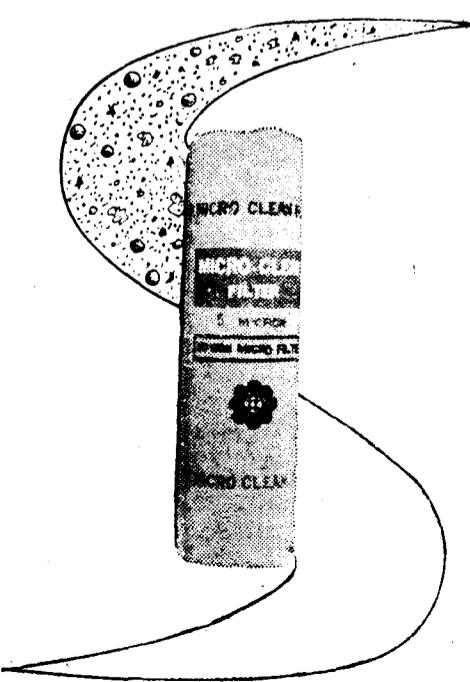
• 濾過裝置

CHEMICAL FEEDER

(消毒裝置)

• POOL場濾過裝置

• 其他機器製作



本
사 ; 서울특별시중구인현동 73~1
(풍전상가 3층가 306)

전화 265-9380, 266-0855·8302

공
장 ; 경기도시흥군의왕면내손리 324-13

전화 1343-3-3552

부산지사 ; 부산시중구부평동 2가 53

전화 23-2407

대구지사 ; 경북대구시중구서문로 1가 25

전화 22-4819

호남지사 ; 전주시태평동 1가 4-10

전화 3-6859

포항지사 ; 포항시죽도 1동 35-34

전화 3-2489

湖源商社